

WWW.GONGJU.GO.KR

# 흥미진진 공주

2025년 12월호



공주의 하루를 여는곳, 공주 쌍신공원의 일출

# 의회 소식

## 사진으로 보는 2025 의정활동



새해맞이 보훈공원 참배(1. 1.)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1. 21.)



공주시 관내학교 재배치 의정토론회(4. 2.)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4. 24.)



2025년 행정사무감사(6. 11.)



단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8. 29.)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10. 23.)



제261회 임시회 현장방문(10. 29.)

## 축제로 피어난 공주, 대한민국이 주목한 여행의 도시



공주시의회 의원  
권경운

2025년 한해, 공주는 그야말로 '축제의 도시'였다.

사계절 내내 도시 곳곳이 음악과 웃음,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들쭉였다.

1월,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한 해의 문을 열었다. 금강신관공원 일대에 고소한 군밤 향이 퍼지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봄에는 '마곡사 신록축제'와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서 푸르른 생명력을 느꼈고, 여름에는 '유구색동 수국축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된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도심의 낮은 형형색색으로, 밤은 흥겨움으로 물들었다.

가을에는 '백제문화제'가 그 중심을 잡으며, 공주 전체가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거대한 무대로 변했다. 특히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감동과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 밖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이어져, 공주는 사계절 내내 축제로 숨 쉬는 도시가 되었다.

공주의 축제는 이제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운영 방식에서도 공주만의 철학이 돋보였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먹거리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금강을 배경으로 한 축제가 많은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된 물과 쓰레기가 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축제 후에도 도시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주시민과 행정의 의지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공주의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축제장을 찾아보면 화장실 위생관리, 쓰레기통의 청결상태, 안내시설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인다. 축제의 노하우란 그런 사소한 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공주의 축제는 그런 면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로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 노하우가 쌓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공주의 축제'가 아니라 '공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결과, 공주는 작년 생활인구 충남 1위, 전국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관광객 수를 넘어, '공주에 머무는 시간과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사계절 흥겨운 축제가 이어지며 공주를 찾으시는 분들께 '공주에 가면 즐겁다', '공주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의 결실로, 올해 'SRT 어워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최고 여행지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46개 도시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 사람의 매력이 어우러진 도시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올해의 최고 여행지'로 선정된 것이다.

공주를 찾는 이들이 또다시 찾고 싶어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도시의 온기와 시민의 미소가 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웃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방문객이 행복을 담아가갈 수 있는 공주시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있다. 돌이켜보면, 축제의 순간마다 시민들의 열정과 응원이 함께했다. 공주의 곳곳에서 환한 미소를 나누어 주신 모든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공주는 계속 피어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머무는 행복, 피어나는 공주. 그 길 위에 저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 의회 소식

##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공주시의회 의원  
송영월

우리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 바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양 대학은 글로벌 대학 사업 예비 선정 이후 2028년 통합대학 출범이라는 일정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양 대학은 대학이 다리를 뺀고 서 있는 통합 지역의 주인인 공주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본 적이 있는가? 협의해 본 적이 있는가? 공주시민 누가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에 대해 동의했는가?

양 대학은 정작 공주시민의 목소리는 단 한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구성원조차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글로벌 대학에 주어지는 지원금에만 관심이 쏠려 서류 몇 장으로 국립공주대의 80년 역사를 통째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이며, 일방통행식 결정이다. 이런 방식의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도, 시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국립공주대는 그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심장이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온 우리의 자부심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주의 브랜드이다. 국립공주대가 있었기에 공주가 '교육의 도시'로 불렸고, 교육의 요람인 국립공주대에서 성장한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우뚝 설 수 있었다.

만약 통합 이후 대학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되고, 학과와 인력, 학생이 빠져나간다면, 공주대는 그야말로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날은 곧 공주의 역사가 사라지는 날, 공주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될 것이다. 국립공주대가 사라진다면 우리 공주시는 청년이 떠나고, 지역이 쇠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수없이 만나며 통합 관련 시민들의 쏟아지는 우려를 들었다. 시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공주영상대도 세종시로 빼앗겨 버린 마당에 국립공주대는 우리 공주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대학마저 잃으면, 공주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세종시 출범에 멀쩡한 금싸라기 같은 공주 땅을 눈 버젓이 뜨고 빼앗겼던 아픈 상처의 기억을 벌써 잊었나!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은 지난 2007년 목숨을 담보로 단식해가며 지킨 국립공주대 교명, 국립공주대 대학 본부를 거저 넘기는 것이다! 국립공주대는 공주시민의 생명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공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 절절한 호소를 공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결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공주시민이 배제된 통합은 결단코 공정하지 않고 결단코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지금, 공주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시민을 대변하는 공주시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한다.

첫째, 공주시의회는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둘째, 집행부와 협력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주시민의 의지를 단호히 전달해야 한다. 셋째,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시민 사회·동문·학생회와 연대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공주의 정체성은 서울의 책상 위에서 대전의 회의실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공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국립공주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켜온 공주의 자존심이며,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마지막 자산이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주의 이름을 지켜야 할 때 외면한 비겁한 사람들”로 남을 것이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립공주대의 이름이, 공주의 정체성이 공주의 미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

